

존경하는 대구대학교 조합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동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취와 행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해 동지들은 우리들의 일터의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동체에 대한 전망 부재와 의지의 상실감이 만연해진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철학과 정책·의사 결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공동체의 생존·발전을 위한 대학본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조합원에게 희생을 전담시키는 독소적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어떤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영광학원과 대구대학교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2024년에도 조합원 여러분의 단결된 뜻을 나침반 삼고, 오늘 맞은 새해 '청룡'의 기운을 동지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여기고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거듭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1. 1.

제19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